



# 1초도 허투루 쓰는 일 없어

**경** 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 폐교를 개조해 세운 원각사 해동선원(海東禪院)은 6월 30일 장마철 흐린 날씨에도 야외법당인 선불장을 조성하는 대작불사로 분주하다.

운동장 한가운데는 22자 108본 규모의 통일대불이 우뚝 서있고, 주위에는 청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달마상, 11면관음보살상, 약사여래불, 18나한상 12지신상 등 100여위의 다양한 석조부처님들이 봉안돼 있다. 7월 12일 봉행되는 통일대불 복장 봉안과 8월 29일 선불장 통일대불 집안 불불식을 앞두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크레인 소리 사이로 원각사 해동선원장 태웅 스님은 불사 하나 하나를 직접 꼼꼼히 챙겼다.

둘 하나 옮기고 앉히는데도 온 정성을 기울이는 태웅 스님. 스님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통도사 분원 서광사를 창건하고, 6만평 부지위에 한국 전통 목조 건축 양식의 법당을 세워 한국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장본인이다.

매일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고 새벽예불, 사시예불, 저녁예불은 빠지지 않는다. 공양도 물론 대중과 같이 한다. 원각사 해동선원은 결제기간 중, 하루 두 시간씩 4회의 수행 정진시간 역시 불사 때문에 모든 시간을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매번 한 시간씩은 동참하려고 애쓴다. 스님의 24시간은 단 1초도 허투루 지내는 일이 없다. 24시간을 오롯이 깨어있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스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른다.

손상자인 총무 돌입 스님은 "스님이아말로 진정한 원력보살"이라고 말했다.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기 위해 원각사 해동선원을 찾은 한 재가불자는 "정말 부지런한 어른이며, 한결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스님 오사체에 꼭 가보라"고 귀뜸했다.

창고를 개조한 한 평 남짓한 스님의 거처. "방이 너무 작아 불편하지 않습니까?"

"방이 커요. 서이(세 명이) 누워도 충분해. 큰 데 가 보면 큰 게 골짜기 아프거든. 절대 큰 거랑 바꾸지 않을 거예요." 스님은 작은 방에서 큰 만족을 이야기했다.

태웅 스님은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나 7세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고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화에 나가 살겠다는 뜻이 나뉘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 전에 기도하며 살고 싶었다는 스님은 17세 때, 불심이 깊은 형님을 따라 울산 미타암 주지로 있던 성수 스님에게 세배하러 갔다가 '이렇게 큰 스님이 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는 형님의 말을 듣고 출가했다.

"성수 스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지요. 단,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니 깨달아야한다며 늘 참선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좌선하는 모습으로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재주나 기교, 꾸밈이 전혀 없지요. 천진면목 그대로인 분입니다."

태웅 스님은 은사스님에 대해 한없는 존경심을 갖고 있다. 1966년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을 때도 스님은 원래 강사를 하기 위해 도반스님 10여 명과 직지사 강원에서 일대시교를 다시 완전히 배울 계획이었는데 '강원에서 일대시교를 봤으면 실천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은사스님의 말에 모든 계획을 접고 오대



원각사 해동선원 경내에 조성된 100여위의 다양한 석조 부처님들.

**야외법당 선불장 조성 불사로 분주  
둘 하나 옮기고 앉히는데도 온 정성  
하루 세번 예불·공양 대중과 함께**

산 상원사에서 7년간 선 수행에 전념했다. '배운 걸 가지고 참선으로 불교가 된지 깨달아야지 말로 익혀서는 안 된다'는 은사스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당시 성수 스님은 "10년간 산에서 산대지가 된다면 나를 때는 뭐가 되도 될 것"이라고 말해 주셨다.

가장 깊은 산을 찾아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 태웅 스님은 적멸보궁에서 1000일 기도를 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을 채우진 못했다. 극락암 조실로 계신 경봉 스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에 극락암에 잠시 내려와 살았는데, 성수 스님이 범어사 주지가 되는 바람에 범어사에서 원주 스임을 보며 은사 스님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스님, 운수남자의 삶에 미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세요?"

"초발심으로 산에 올라가 도를 닦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신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절 살림을 하면서, 불사를 하면서 수행자의 결음을 멈추지 않았다. 스님은 지금 이 순간도 화두를 놓지 않고 있다.

이야기 중간 중간, 불사의 과정 과정을 점검하는 스님은 일을 들쭉했다고 나쁜 총무 스님의 도반에 대한 배려도 각별했다. 혹 젊은 열기에 무리를 해서 몸을 다칠까 마음 쓰는 태웅 스님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원형거리는 크레인 소리에 신경이 거슬릴 법도 하고, 대작불사의 마무리 과정에 신경 쓸 일도 많은 텐데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귀찮게 물어대는 기자에게 한결같이 대하는 모습이다. 태웅 스님에게서는 한 점 흐트러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을 지시할 때도 목소리에 따뜻한 부드러움이 가득하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태웅 스님 (산청 원각사 해동선원장)

### 불교TV 사장 역임, 加 '서광사' 창건

태웅 스님은 1956년 울산 미타암에서 성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57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통도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조계사·통도사 주지 제11대 중앙중회의원을 거쳐 (재)불교방송 이사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총재 (주)불교텔레비전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캐나다 밴쿠버에 통도사 해외분원 서광사를 창건했다.

### 알기쉬운 佛敎 儀式

##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심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열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략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알기쉬운 齋禮 儀範

##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시간 만물지중이 유인이 최귀하고 유 무만물지 중이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합하신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빈번비례(非非)합니다. 또한 대중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보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중 법진이 할정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너무 마하반야 바라밀

編 · 著者 法儀 幸承都

**제1장** 송주편

**제5장** 모든법회

**제8장** 점안편

**제2장** 예경편

**제6장** 방생

**제9장** 이운편

**제3장** 전각예경편

**제7장** 재물보살경의식

**제10장** 수계편

**제4장** 불공편

**제8장** 파불의식

**제11장** 고사편

**제1장** 시시편

**제4장** 四十九齋

**제5장** 재공편

**제6장** 기제사

**제2장** 장의편

**제3장** 다비편

**매장** 埋

**葬**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리니 지정정 영산대제 곽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심량생탈재(冥修十生七齋)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 생사없는 영원한 삶을 믿으세요

이곳 원각사 해동선원은 새 땅에 사자세계(인제)를 키우겠다며 은사 성수스님이 2002년 폐교를 개조해 세운 도량입니다. 선원이름에 원(院)자가 아닌 원(園)자를 쓴 것은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근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원각사'라는 이름은 평소 성수 스님이 천도할 때 늘 읽던 <원각경>의 이름을 따서 원각사라 지었고, 해동선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인 원효 스님을 일컬어 중국에서 '해동불'이라 했다는데서 따 해동선원이라 했습니다.

성수 스님은 어릴 때 자기포레의 친구들과는 놀지 않고 늘 노인들과만 놀았습니다. 그래서 '옛노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때 성수 스님이 노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원효대사가 아끼었습니다. 성수 스님은 그래서 원효대사와 같은 분이 되기 위해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동선원에는 성수 스님이 직접 지시해서 조성한 원효성상을 주불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과거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어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생겨나고,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는 물론 인제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중생의 업으로 생기는 것인데 모두의 정신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견성 성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수 스님의 원력이고 이 터를 잡고 불사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경주남산에 가면 돌마다 탑을 모시고 부처님을 조성했습니다. 남산전체가 박물관이고 노련 법당입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법당따로 삼았으니 세계에서 제일 큰 법당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안목으로 불사를 시작하고자 했고, 그리고 옛날 신라시대 김대성이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우고 석굴암 부처님을 모신 뜻을 다시 새겨 이곳에 봉안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다 아사다시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김대성은 다음생에 부잣집에 태어나 가난한 전생부모와 부자인 현생부모를 한집에 모시고 산 효자입니다. 그리고 과거 부모를 위해서는 다보탑을, 현생 부모를 위해서는 석가탑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사달은 자신을 기다리다가 죽은 아사녀의 다음 생을 축복하기위해 석굴암 부처님을 조성했습니다. 인도의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영산회상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토함산에 생동감 있게 재현함으로써 아사녀를 위한 사랑을 세계적인 문화재가 되도록 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라불교가 생사가 없는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래응 스님의 가르침

원력 세우고 어떤 어려움 있어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계 지키는 것'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과거 부처님의 영산회상 당시를 활발로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불사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생은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걸 재현한 것입니다. 김대성이 아사달에게 죽은 아사녀를 축복해주라고 한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또, 석굴암 부처님을 통해 바다 해가 떠오르는 쪽에 조성해 해가 떠오를 때마다 붉은 햇빛을 받아 밭그스레하게 살색을 띠면서 생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활발을 친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불성이 영원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사가 없는 영원한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원각사 통일 대불도 당시의 원력을 이 순간의 원력으로 끌어들이어 삼고자 했습니다. 불성은 영원하며, 생사가 없는 영원한 삶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돌부처님 앞에서 기도 참선정진을 해서 견성성불하십시오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지극히 바릅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나는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하세요. 실천의 첫 걸음은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등의 오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지극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자들은 물질과 명예에 재미를 붙이지 말고 정신 수행으로 성품 깨달아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세속에서는 산더미처럼 쌓고 끌어안아야 출세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완좌도 버리고 금식하고 6년 고행해서 출세한 분입니다. 이처럼 다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거쳐야 생사 해탈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하구나' 무릎치고 박장대소할 수 있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왕좌까지 버린 그 자체가 대웅(丈雄)입니다. 영웅 중에 영웅인 것입니다. 상대를 조율한 영웅, 그래서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3>



### '육아경'을 다시 읽는다(1)

<육아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이 있습니다. 육아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부유하고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급고 독장자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자기가 한 남자의 아내요, 한 집안의 며느리로 임장이 바뀐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나 봅니다.

그녀는 자기의 미모와 친정집의 배경을 믿고서 매우 교만하였고 시어른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도 무시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인 급고독장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우리 며느리 사람 좀 만들어 달라는 청을 넣었겠습니까? 이런 사정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경이 바로 <육아경>입니다.

부처님은 아름답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육아에게 그 유명한 '일곱 종류의 아내'를 들려주십니다.

### "하인과 같은 아내로 살겠습니다" 복종 강요하는 경으로 여겨져 여성불자들에게 되레 외면 당해

첫째는 어머니같은 아내입니다.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며 밤낮으로 살펴주고

둘째는 누이같은 아내입니다. 남편과는 한 나무에서 자라난 형제처럼 사이가 좋아서 오 누이마냥 사랑하고 정성을 들이며 남편을 오빠처럼 좋아하고 소중하게 받드는 아내입니다.

셋째는 좋은 친구같은 아내입니다. 남편과 매우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뢰위하여 조금이라도 떨어져 지내지 못하며,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일을 항상 서로 이야기하며,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충고하여 행실이 실수가 없게 하며, 착한 일로 서로 가르쳐 더욱 지혜로워지게 하며, 사이좋고 속 깊은 친구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 아내입니다.

넷째는 며느리같은 아내입니다. 시부모님께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공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그와 같이 어른 모시듯 받들어 섬기고, 집안일을 처리하고 단속할 때에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꼼꼼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예절을 세세히 뒤야 조금이라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행동거지에 예의를 잃지 않고, 오직 집안의 화복을 귀하게 여기는 아내입니다.

다섯째는 하인같은 아내입니다. 남편을 비롯 한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항상 두려워하고 조

심하는 생각을 품어서 감히 자만하지 않으며, 조심성 있게 일해 나가되 피하고 꺼리는 것이 없고 말이 부드럽고 성품이 온화하며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정숙하고 진실하고 언제나 자신을 예(禮)로 엄하게 단속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다보니 남편의 극진한 사랑이나 출대에도 급방 얼굴빛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인이 상전을 섬길 때에는 항상 자신을 낮추듯이 남편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아내입니다.

여섯째는 원수같은 아내입니다. 남편을 봐도 즐겁지 않고 항상 분노를 품으며, 밤낮으로 서로 떨어질 생각만 하니 부부간의 정이 없고 상대를 배우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밋밋이 사는 객처럼 여깁니다. 보기만 하면 싸우고 헐어질 머리를 하고 누워서 자식과 가사를 돌보지 않고, 욕을 당한 것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내입니다.

일곱째는 목숨을 빼앗는 아내입니다. 원수같은 아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만 생각합니다. 바라보기만 하여도 분노가 치솟아 급기야 남편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아내입니다.

육아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모와 친정집의 배경을 믿고 교만하였던지라 앞으로는 하인과 같은 아내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이 경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경은 여자에게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경으로 여겨져서 정작 주인공인 여성 불자들에게는 외면을 당하였고 스님들이나 남성들에게 오히려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 역시도 <육아경>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흥..!' 하며 크게 울어버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경을 무리없이 받아들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에게 매우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성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며 똑같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여성은 자신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는 여성은 집안 생계를 남편과 똑같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하인같은 아내로 살겠다는 뉘우침을 담은 <육아경>이라니요...

그런데 경의 전후사정을 따져가면서 읽어가자니 우리가 너무 자기 좋은 대로만 이 경을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 이미령(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 불교학원 이사장 임영자 / 조지기

전각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한 문제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사(禪師)!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백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바로보인 선가귀감  
영원한 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복제로 세상을 복사하여  
앞을여 국화꽃 품고 복산에 짓는 회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한 문제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제단이 사무관 경지에 대한 이렇듯 명백한  
경과, 오우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후의 무명과 우주생명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남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선가귀감 회  
선가귀감 법문 태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출간될 책은 바로보인 선문염송 6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지구산업**  
www.dangaro.com/지구산업.net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 [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조급이 발자루 No-1210 7000x4000x3300(mm) 가격: ₩800,000

●아름다운 주방용 발자루 No-1270 9960x4700x3300(mm) 가격: ₩900,000  
를, 욕실에서도 역시 않는 기동, 평상은 갈라지거나 부식이 전혀없이  
주말농장, 휴양빌, 현선, 수련원, 사찰에서 많이 사용됨 (현하는 사이고, 주문 생산가능)  
어플에 세련되고 커튼에는 탁도한 스타일

●몰로 현수하는 탁상 No-1540 1900x1030x350(mm) 가격: ₩190,000  
전국, 각종 사찰 및 수련원, 보리 밭, 임차기 (1인만 사용)  
깔라지거나 탁상에 걸쳐 놓고 주걱, 도색이나 권리가 필요 없어 한 영구적이며  
꼭히 휴안이 부드럽고 비 온도 바로 느낄 수 있는 제품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 목 지음 들샘길 양

... 배 마음의 양과 맑음 여실취 깨달아  
상참로 기쁨반구.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  
에 아우르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걸작>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람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  
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  
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마리말 속에서-

**이 책의 특징**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揭示
- 자기발전 · 생활속 수행과 생활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구입문의.....  
전국불교서점 · 유행서점  
총판 : (02) 3672-7181  
유식사상연구회 송  
(055) 353-6142  
010-2356-6142

**복달마! 돈달마!**

무엇이 잘 안 풀리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는 친필달마도  
황금돈이 수없이 모아드는 행운과 영험을  
외면 하시렵니까??  
신중기도 100일 후 출시합니다. ₩300,000원

**미타정사 성각 합장**  
02)389-5991, 2088